

청년기 자녀의 아버지와의 커뮤니케이션과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munication with Father and the Self Concepts of Adolescents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조 교 : 이 경 주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 Kyung Ju Lee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부교수 : 신 효 식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d Prof. : Hyo Shick Shin

— 목 차 —

<p>I. 서 론</p> <p>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p> <p>1. 커뮤니케이션의 개념 및 기능</p> <p>2. 자아개념</p> <p>3. 커뮤니케이션과 자아개념의 선행연구</p> <p>III. 연구방법 및 절차</p> <p>1. 연구문제</p> <p>2. 척도의 구성</p>	<p>3. 조사대상 및 자료처리</p> <p>IV. 연구결과 및 해석</p> <p>1.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부친-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 관계</p> <p>2.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자아개념과의 관계</p> <p>3. 부친-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자아개념의 관계</p> <p>V. 결론 및 제언</p> <p>참고문헌</p>
--	---

= ABSTRACT =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influencing the communications and the adolescents' self concepts, and to defin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ommunications and the adolescents' self concepts.

For this purposes, a survey was conducted using questionnaire. The data used in this study included 478 boys and girls in high school living in Kwangju. Statistic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Frequency Distribution, Percentile, Mean, Standard Deviation, F-test, Scheffé-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

- 1) The communication between fathers and their adolescents children differed significantly by educational level, occupation, and income of their fathers.
- 2) The self concept differed significantly by sex of children, educational level, occupation, and income of their fathers.
- 3) The correlation between self concept and communication among fathers and their adolescents children marked positive correlation except Self-Criticism.
- 4)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s on communication between fathers and their adolescents children were the Family Self Score.

I. 서 론

현대의 산업화, 도시화는 가족제도를 직계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시키고 이에 따라 가족의 구성, 성원간의 관계 및 가족생활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중에서도 부모-자녀관계는 종래의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상호작용적 기능이나 동료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커뮤니케이션 그 자체로서 형성, 발전되어져 간다고 볼 수 있다.

가족내의 커뮤니케이션은 가족원간의 애정관계와 연관되며 한 가족원의 영향력 정도를 반영하나, 자녀의 사회화, 가족간의 갈등문제 해결의 意義를 갖고 있으므로(장명옥, 1981 : 10)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거나 부족될때에는 자녀에게 부적응 행동이 유발되어 정신건강, 자아존중, 가족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비행등의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다.

인생주기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인 청년기가 교육기간의 연장, 취업난의 가중등으로 장기화되는 현상이며 이러한 발달과정에 있어 부친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게 되었다. Lipper와 Block (1973)에 의하면 낮은 사회화의 기술과 인격부적응을 나타낸 사람은 부모가 모순된 성격을 갖고, 자녀에 대해서 아버지의 참여가 적은 가정에서 성장하였다고 밝혔고(이석경, 1987), 김광웅(1978)은 부자관계가 친밀하고 대화를 나누는 男兒는 그렇지 못한 男兒에 비하여 인성특성이 유의하게 높다고 하였다. Luckey(1960)는 여성이 성공적인 결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딸의 여성다움을 인정하는 온화하고 애정있는 아버지를 경험할때 증가

하므로 아버지가 여성의 결혼적응과 인성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박미자, 1981). 따라서,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부부의 권력구조 변화 및 모친의 취업이 증대되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부친과 자녀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은 자녀의 긍정적인 행동발달을 위해서 재인식되어져야 할 요건으로 생각된다.

부모-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부모-자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척도로 본다면 부친-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오늘날, 아직 부친-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가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기 발달과업을 초점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정도의 質적인 면을 파악하여 부친-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배경변인에 의하여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청년기를 원만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부친-자녀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意義를 두었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커뮤니케이션의 개념 및 기능

1) 커뮤니케이션의 개념

가족들이 스스로의 생활을 해 나갈때 그들은 그들 자신들의 규범의 발전뿐 아니라, 이런 규범이 어떻게 규정되고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며 변화되는가 하는 과업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때 커뮤니

케이션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Adams 1980: 301) 커뮤니케이션의 語源은 공동·공통 또는 공통성을 의미하는 라틴어 Communis 혹은 Communicare 이며(차배근, 1985: 18), 본래의 의미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사실, 생각, 의견 또는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일련의 행동. 특히 상호간의 공통적 이해가 중심이 된다는 뜻이다(박연호, 1980: 140).

여러가지 달리 정의되는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eacon과 Firebaugh(1975)는 커뮤니케이션이란, 發信者로부터 受信者에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과정이며, 이에 전달하고 받는 개인 상호간의 장벽, 기술적인 문제, 동기등이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데 영향을 준다. 또 메시지는 언어적,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전달되며, 對人的 커뮤니케이션은 개인이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다른 사람 마음속의 意味를 자극시키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Paolucci, Hall 그리고 Axinn(1977)은 커뮤니케이션을 인간관계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것으로 가족원들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경험과 의미의 수준을 창조하는 정보체계이고 모방된 교환물이며 의사결정과 결정수행상에 필수적임을 밝혔다.

또한 Galvin과 Brommel(1982)은 가족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상징적인 거래 과정, 더 간단히는 의미들을 창조하고 공유하는 과정으로 보고, 만일 의미를 상호간에 공유하지 못할 때는 커뮤니케이션이 어렵게 된다고 하였다.

유영주(1985)는 자극을 전달해서 반응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관계로 정의하고 인간 관계를 존속시키고 발전시키는 수단이라고 하였다.

결국, 커뮤니케이션은 개인과 개인간에 이루어지는 언어적·비언어적 의미전달로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언어적인 수단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고 있음을 밝힌다.

2) 커뮤니케이션의 기능

Colley가 커뮤니케이션을 “인간관계가 유지되고

발전되는 메카니즘”이라고 한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사회화과정이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장명욱(1984)은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그가 속한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 사회의 성원으로로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한 성원들은 집단을 구성하고 기능을 발휘한다는 의미에서 집단유지의 가장 기초적인 과정으로 보았다.

Satir(1977)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메시지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반응하는 능력으로서 커뮤니케이션은 가족내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요소라고 밝혔다. Schramms(1971)에 의하면 커뮤니케이션은 주위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을 이해하며, 교육하고 학습하며, 즐거움을 주고 받으며, 설득하고 합의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하였다.

또 Deacon과 Firebaugh(1981)는 메시지에 대한 완전한 이해의 교환은 목표설정과 기준을 명확히 할때, 그리고 계획을 수행하고, 산출로서의 만족과 불만족을 논의하는데 필수적이며,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인간 상호간의 접촉을 지속시켜 사회를 유지시킬 뿐 아니라, 가족들과의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주고 미래 지향적 관리과정을 유도하고 자녀의 사회화와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이 존재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Tannenbaum(1975)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수신자가 송신자의 메시지에 대해 관심이 클때 그 메시지는 받아들여지고 이해되는 효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여 메시지를 받았어도 그것이 잘못 해독되거나 해독되지 못한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 기능이 원활히 작용하도록 수신자와 송신자간에 개방된 채널을 가지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2. 자아개념

성격에 중추를 이루고 있는 자아개념은 한 개인의 행동특성에 영향을 주어 타인에 대한 태도와

자기의 행동양식을 결정지어 주기 때문에 사회적 인 적용과 관계가 깊다.

이러한 자아개념은 1943년 Raimy가 처음으로 정의를 하였는데 그는 자아개념이란, 현재 및 과거의 자아관찰의 결과로 발생하는 인지의 대상이며, 인간이 자기라고 믿는 것으로 보았고(Combs & Snygg 1959), Byrne(1974)은 자아개념이란, 한 개인이 자기의 행동, 능력, 신체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 가치에 관련지어 지니고 있는 태도, 판단등 가치의 전체 집합체로서 요컨대 그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지각하느냐 하는 것으로 보았다.

Hall과 Lindzey(1978)는 자아개념을 첫째, 한 개인이 그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나 느낌의 집합체로서 보려는 경우, 즉 대상으로서의 자아(self-as-object)이며, 둘째는 개인행동의 결정인자로서 사용되는 심리적 과정으로서의 자아(self-as-process)이며 전자는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실적 규정이며, 후자는 개인이 도달하려고 하는 신념체재라고 하였다.

정원식(1968)은 자아개념을 개인이 행동해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개념, 가치관, 목적, 이상등이 역동적으로 결합된 조직체로 정의해서 보다 넓은 관점에서 행동의 결정요인으로서의 자아개념을 규정하였다.

결국, 자아개념은 개인에 관계되는 본질로서 인성의 중요부분이며, 개인차를 나타내는 한 차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3. 커뮤니케이션과 자아개념에 대한 선행연구

ㄴ) 배경변인별 커뮤니케이션과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1) 성 별

옥선화(1987), 정혜영(1986), 유명숙외(1966)의 연구는 남학생이父와의 커뮤니케이션 정도가 높다고 하나, 안복례(1980) 김설희(1982), 이종순(1983)의 연구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친자간의 대화가 더 많다고 하였고, 이석경(1987)은父는 동성인 아들보다는 이성인 딸과 대화시간을 많이 가진다고 하였다.

Skaft는 남아가 여아보다 자아개념이 부정적이라고 하였지만(김정희 1987), 박춘심(1981)에 따르면 아동의 자아개념은 성별에 관계없이 사회·문화적 조건에 영향을 받으며, 이 영향은 부모의 관심있는 태도에 의하여 더욱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2) 학 력

정혜영(1986), 이석경(1987)은父의 학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정도가 높다고 밝혔고 김경숙(1982)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간의 커뮤니케이션 인식도와 의사소통 정도가 원활하다고 밝혔다.

Hurlock(1973)은 학력의 수준차이에 따라 자아개념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Rogers(1951)는 학교에서의 학업성적 정도가 자아개념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3) 父의 연령

진영희·박혜경·원세시리아(1986)는父의 연령이 많을수록, 母는 연령이 적을수록 대화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하였고, 옥선화(1987)는 저연령 집단의 부모가 자녀와 대화를 더 많이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미란(1985)은父의 연령은 자녀에 대한父의 역할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4) 父의 직업

이석경(1987)은父가 전문·기술직, 관리·사무직 종사자일때 판매·서비스직, 농업·생산직 종사자보다 자녀와의 커뮤니케이션 정도가 높다고 하였고 정혜영(1986)도父의 직업이 전문직일 경우 의사소통 정도가 높다고 밝혔다.

(5) 경제적 요인

Deacon과 Firebaugh(1975, 131)는 가족내 의사소통의 량과 質은 대단히 다양하며,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가족내에서 더 많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Benson(1955), Nyc(1951) 그리고 Maas(1951)는 중·상층 가족들이 하층가족보다 청년기 자녀들과 커뮤니케이션면에서 문제가 더 적고 더 민

주적인 경향을 보이며(Duvall 1977), 장현숙(1983)도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 부모들이 지위적이기 보다는 인간적이라고 하였다.

Melvin(Kohn 1968)에 따르면, 하류 노동계층의 가족이 중류계층보다 권위의식을 많이 갖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자녀들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커뮤니케이션을 제한받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김명자(1978)는 가정의 물리적 환경이 좋으면 자아개념이 높다고 하였고, Klausmeier & Ripple(김정희 · 주영숙 1982)은 경제적 소득수준이 낮으면 열등한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고 밝혔다.

2) 부모와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 특성에 관한 연구

Koffman(Nickell, Rice 그리고 Tucker 1976)은 그의 Kibbutz가족 연구에서 부모-자녀간의 수준 높은 대화는 자녀의 정신건강뿐 아니라 학습효과를 향상시킨다고 보았고, Likert(장명옥 1982)는 커뮤니케이션 정도가 원만할수록 성공적 목표달성을 한다고 밝혔다.

Bienvenu와 McClain(1970)은 부모-청년기 자녀의 커뮤니케이션과 자부심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청년기 자녀의 자부심과 그가 지각한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 수준간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혔고, 고정희(1981)는 인간관계 지향적인 대화를 사용하는 가정의 자녀일수록 학업성적이 높게 나타났고 사회적 인지능력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Ritter(1979)는 청년기 자녀들의 의사소통 능력은 연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다른사람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증가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능력은 결국 성장하고 있는 청년기 자녀가 그들의 부모들과 성인수준에서 상호관계를 갖도록 만들어주게 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Galvin & Brommel 1986).

Rausch, Goodrich 그리고 Campbell(Aldous 1978)은 가족원간의 친밀성을 유지하고 의견일치를

보기 위해서는 언어적 의사소통도도 중요하지만, 이해나 관심, 느낌,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지적했고, Chilman(1975)은 부모-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장애가 되는 요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대를 제기하는 대화방식이라고 하여 보다 지지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McClelland, Constantion, Regalado 그리고 Stone(1978)은 부모와 청년기 자녀들과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부모들이 청년기 자녀들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와 고민을 해결할 기회를 주고 공감하면서 경청해 줄 것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이론적 특성을 살펴보았는데父가 이러한 측면을 인식하고 능동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노력한다면 자녀는 청년기를 잘 적응해 나갈 수 있고 부친-자녀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연구문제 I :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부친과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어떤 차이를 보일 것인가?

연구문제 II :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자아개념은 어떤 차이를 보일 것인가?

연구문제 III : 부친과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자아개념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2. 척도의 구성

1) 커뮤니케이션 척도

커뮤니케이션 척도는 Havighurst의 청년기 발달과업을 근거로 학교성적·학업, 대학진학, 친구간의 문제, 가족들과의 갈등·친척들과의 문제, 용돈사용, 순결·성·이성교제, 가족내 역할문제, 성차별, 인생관, 전통적 가족가치관, 장래문제, 여가활동, 취미활동, 사회·정치문제의 14개 영역으

로 설정하여 5점 Likert 척도로 최저 14점에서 최고 70점까지의 점수로 나타내었다. 이때 점수가 높을수록 커뮤니케이션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각 영역간의 내적 일관성은 Cronbach $\alpha=.87$ 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2) 자아개념 척도

자아개념 척도는 정원식의 표준화된 자아개념 검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처리

예비조사는 88년 7월 12일~7월 15일에 걸쳐 20명의 남녀 고교생에게 실시하였고, 본 조사는 총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변 인	분 류	빈도(%)
성 별	남	235(49.2)
	여	243(50.8)
부 의 연 령	45세 미만	77(16.1)
	45세-49세	185(38.7)
	50세-54세	152(31.8)
	55세 이상	64(13.4)
부 의 학 력	국졸이하	62(13.0)
	중 졸	81(16.9)
	고 졸	190(39.7)
	대졸이상	145(30.3)
직 업	무 직	9(1.9)
	농업, 어업	96(20.1)
	판 매 직	96(20.1)
	사 무 직	124(25.9)
	관 리 직	51(10.7)
	전 문 직	75(15.7)
	기 타	27(5.6)
소득수준	30만원 미만	64(13.4)
	30-50만원 미만	165(34.5)
	50-70만원 미만	160(33.5)
	70-90만원 미만	49(10.3)
	90만원 이상	40(8.4)
형제순위	장남, 장녀	163(34.1)
	중 간	130(27.2)
	막 내	165(34.5)
	외동딸, 아들	20(4.2)
가족형태	핵 가족	413(86.4)
	대 가족	65(13.6)

600명을 대상으로 88년 7월 18일~7월 23일에 실시하여 586부가 회수되었는데 이중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478부를 연구 분석자료로 삼았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자료처리는 전남대 전자계산소에서 SAS program package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산술평균을 구한 뒤, 변량분석, Scheffé-test, Pearson 상관계수, 단계적 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부친과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 관계

부친-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일반적 경향이 표 2에 나타나 있는데 70점 만점에서 56점 이상의 상집단이 1.7%, 29~55점의 중집단이 83.0%, 28점 이하의 하집단이 15.3%를 나타내어 조사대상자가 중하집단에 속하고 있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부친-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변량분석한 결과가 표 3인데 부친과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은 학력($p<.01$), 직업($p<.05$), 소득수준($p<.05$)에 의해 의미있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문제 1은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학력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정도는 대졸이상인 집단에 속하는 집단이 가장 높으며, 중졸에 속하는 집단이 가장 낮았다. Scheffé-test 결과를 보면, 대졸이상에 속하는 집단과 국졸이하, 중졸에 속하는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표 2. 부친-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 정도의 일반적 경향

집 단	빈 도	백분율(%)
상(56점 이상)	8	1.7
중(29점-55점)	397	83.0
하(28점 이하)	73	15.3
평균	36.73	
표준편차	8.23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별 커뮤니케이션 정도

변 인	분 류	평균점수	Scheffé
성 별	남	36.68	
	여	36.78	
F		.02	
부 의 연 령	45세 미만	37.50	
	45세-49세	37.42	
	50세-54세	36.00	
	55세 이상	35.57	
F		1.48	
부 의 학 력	국졸이하	35.83	b
	중 졸	34.64	b
	고 졸	36.61	ab
	대졸이상	38.45	a
F		4.20**	
직 업	무 직	31.77	b
	농업, 어업	36.64	ab
	판 매 직	35.17	b
	사 무 직	36.85	ab
	관리, 전문직	38.35	a
F		2.50*	
소득수준	30만원 미만	35.35	b
	30-50만원 미만	35.60	b
	50-70만원 미만	37.60	a
	70-90만원 이상	38.25	a
F		3.29*	

**p<.01 *p<.05

주) 부의 직업에서 기타는 제외시켰음.

결과는 정혜영(1986), 이석경(1987), 옥선화(1987)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직업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정도는 관리·전문직의 집단이 가장 높으며, 무직의 집단이 가장 낮았다. Scheffé-test 결과를 보면, 관리·전문직에 속하는 집단이 무직, 판매직에 속하는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父의 직업이 전문직일 경우 의사소통 정도가 높다고 한 이석경(1987), 정혜영(1986)의 연구를 지지해준다.

소득수준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정도는 70~90만원 이상의 집단이 가장 높으며, 30만원 미만의 집단간에 가장 낮았다. Scheffé-test 결과를 보면,

표 4. 자아개념의 일반적 경향

하위영역	M	SD	만 점
A	61.39	7.82	90
B	57.61	6.85	90
C	56.93	7.84	90
D	59.19	8.65	90
E	55.67	6.86	90
I	103.89	17.89	150
II	90.43	10.64	150
III	96.72	10.01	150
TP	290.64	27.81	450
SC	34.65	4.77	50

주) A : 신체적 자아 I : 자아동일성
 B : 도덕적 자아 II : 자아수용
 C : 성격적 자아 III : 자아행동
 D : 가정적 자아 TP : 총자아긍정
 E : 사회적 자아 SC : 자아평가

50~70만원 미만의 집단이 30~50만원 미만, 30만원 미만의 집단간에, 또한 70~90만원 이상의 집단이 30~50만원 미만, 30만원 미만의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Chilman(1975)이 가난은 가족원들의 불신 및 부모-자녀사이의 의사소통이 적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연구와 황덕순(1981)의 연구에서 안정된 소득계층의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원활하다고 한 결과의 견해를 지지해 준다.

이상으로 고학력, 관리·전문직, 고소득 집단이 자녀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의도적으로 교육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황정규외(1982)가 부친의 학력, 직업, 월수입은 자녀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견해와 일치하고 있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자아개념의 일반적 경향은 표 4인데 표준집단의 중간정도 수준이며,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자아개념간의 관계에서는 부친의 연령변인을 제외하고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연구문제 II는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자녀의 성별에 따른 자아개념(표 5)은 신체적

표 5. 성별 자아개념

변인	자아개념		A	B	C	D	E	I	II	III	TP	SC	
	분류												
성별	남	M	62.58	56.85	56.89	58.15	55.53	104.39	90.43	96.03	289.60	35.02	
		SD	7.79	7.24	8.61	8.49	6.56	23.07	10.26	10.27	29.46	5.06	
	여	M	60.25	58.35	56.96	60.19	55.82	103.40	90.42	97.39	291.64	34.29	
		SD	7.69	6.37	7.02	8.70	7.15	10.76	11.02	9.73	26.14	4.45	
	F			10.87***	5.81*	.01	6.72**	.21	.36	.00	2.21	.65	2.83

***p<.001, **p<.01, *p<.05

표 6. 부의 연령별 자아개념

변인	자아개념		A	B	C	D	E	I	II	III	TP	SC	
	분류												
부의 연령	45세 미만	M	60.27	57.37	56.87	60.31	54.93	102.80	90.71	95.33	288.85	34.22	
		SD	6.73	7.12	7.30	8.41	6.67	10.94	9.20	10.88	26.35	5.15	
	45-59세	M	60.08	57.83	57.43	59.00	56.20	104.27	91.32	97.04	292.66	35.14	
		SD	7.77	6.62	7.96	8.26	7.13	11.63	9.52	10.08	27.54	4.32	
	50-54세	M	61.61	57.34	56.53	58.73	55.99	102.48	89.90	96.99	290.00	34.25	
		SD	7.79	6.93	7.81	9.08	6.48	11.32	12.33	9.35	27.55	4.96	
	55세 이상	M	60.26	57.93	56.46	59.46	54.31	107.45	88.73	96.82	288.45	34.75	
		SD	9.07	7.09	8.23	9.05	7.09	39.47	10.94	10.35	31.04	5.04	
	F			1.49	.22	.46	.62	1.62	1.28	1.12	.59	.59	1.22

표 7. 부의 학력별 자아개념

변인	자아개념		Scheffé -test				Scheffé -test			TP	SC		
	분류		A	B	C	D	E	I	II			III	
부의 학력	국졸이하	M	60.32	57.46	57.56	60.40	55.75ab	107.83	90.56ab	96.46	290.03	34.74	
		SD	8.54	6.43	7.92	7.69	5.72	39.60	9.29	9.60	26.43	4.50	
	중 졸	M	59.91	57.01	55.61	59.08	54.56 b	101.58	88.41 b	95.98	286.09	33.88	
		SD	7.82	7.37	7.27	9.22	6.59	10.76	9.87	10.98	27.34	5.21	
	고 졸	M	61.58	57.31	56.55	58.76	54.88 b	102.88	89.73 b	96.03	289.08	34.86	
		SD	7.85	6.58	7.37	8.15	6.57	11.10	11.43	9.25	26.45	4.77	
	대졸이상	M	62.44	58.42	57.88	59.28	57.31 a	104.81	92.40 a	98.15	295.47	34.77	
		SD	7.33	7.05	8.60	9.36	7.55	12.58	10.30	10.52	29.91	4.64	
	F			2.28	1.01	1.76	.56	4.38**	1.79	2.94*	1.46	2.41	.85

**p<.01, *p<.05

자아(p<.001), 도덕적 자아(p<.05), 가정적 자아(p<.01) 영역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신체적 자아의 경우 여학생이 더 부정적이었고, 도덕적 자아와 가정적 자아에서는 남학생이 더 부정적이었다. 이는 Corrigan(1970)과 Lefley(19

73)의 연구에서 男兒의 자아개념이 여아보다 부정적이라고 한 결과와 일치한다. 부친의 학력에 따른 자아개념(표 7)은 사회적 자아영역에서 p<.01수준, 자아수용 영역에서 p<.05수준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두영역 모두 대졸이상의 집

표 8. 직업별 자아개념

변인	자아개념		Scheffé										
			A-test	B	C-test	D-test	E-test	I	II-test	III-test	TP-test	SC	
부의 직업	무 직	M	58.55 c	54.00	57.33ab	56.88a	56.66a	99.33	89.00ab	95.11ab	283.44 b	32.11	
		SD	8.80	7.48	8.81	9.79	7.92	12.84	12.79	12.01	35.12	5.84	
	농업, 어업	M	61.44abc	57.64	57.22ab	60.50a	55.56a	107.08	90.17ab	97.50ab	291.69ab	33.85	
		SD	9.02	7.44	7.62	7.59	5.72	32.49	9.36	10.78	27.97	5.13	
	판 매 직	M	59.29 bc	56.70	54.44 b	57.84a	52.59 b	99.95	87.71 b	93.10 b	280.78 b	35.42	
		SD	7.32	6.79	7.42	9.06	6.03	10.61	9.11	8.95	23.98	4.73	
	사 무 직	M	61.34abc	57.11	56.66ab	57.85a	55.79a	102.52	89.93ab	96.17ab	288.69ab	35.03	
		SD	7.78	7.33	7.76	8.59	6.53	10.99	10.23	9.83	27.30	4.39	
	관리전문직	M	63.03a	58.62	58.58a	60.79a	57.56a	106.03	92.54ab	99.30a	298.60a	34.88	
		SD	7.13	6.14	8.40	8.82	7.89	12.82	12.95	10.21	30.10	4.86	
	F			2.86*	1.99	3.30**	2.54*	6.54***	2.19	2.96*	4.66***	5.17***	1.86

***p<.001, **p<.01 *p<.05

표 9. 소득수준별 자아개념

변 인	자아개념		Scheffé					Scheffé				
			A	B	C	D	E-test	I	II	III-test	TP-test	-test
소 득	30만원미만	M	59.51	36.98	56.37	58.29	55.18b	100.71	89.42	95.28b	285.43 b	33.87
		SD	7.71	7.18	7.55	7.04	6.66	10.96	8.55	9.70	25.50	5.66
수 준	50만원미만	M	61.46	57.39	56.41	58.90	54.67b	104.47	90.63	95.24b	288.56 b	34.27
		SD	8.29	6.46	7.29	7.89	6.35	25.65	9.44	9.85	26.22	4.63
	70만원미만	M	61.33	57.95	56.71	58.90	55.73b	103.50	89.79	97.40ab	290.78 b	35.11
		SD	7.37	7.10	8.11	9.03	7.06	11.47	10.20	9.55	27.52	4.52
	90만원이상	M	62.75	57.88	58.66	60.86	57.79a	105.80	91.92	99.29a	297.96a	35.10
		SD	7.63	6.91	8.38	10.15	7.18	13.16	14.27	10.83	31.55	4.71
F			2.15	.42	1.84	1.46	4.20**	1.10	.98	3.91**	3.15*	1.63

**p<.01, *p<.05

단이 점수가 가장 높고, 중졸집단이 가장 낮았다. Scheffé-test 결과를 보면, 두영역 모두 대졸이상의 집단과 중졸, 고졸의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된다고 한 Hurlock(1973)의 견해를 지지해 준다.

직업별 자아개념(표 8)은 신체적 자아영역에서 p<.05수준, 성격적 자아영역에서 p<.01수준, 가정적 자아영역에서 p<.05수준, 사회적 자아영역에서 p<.001수준, 자아수용 영역에서 p<.05수준, 자아행동 영역에서 p<.001수준, 총자아긍정 영역에서 p<.001수준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신체적 자아, 가정적 자아영역에서는 관리·전

문직의 집단이 점수가 가장 높고 무직의 집단이 가장 낮았으며, 성격적 자아, 사회적 자아, 자아수용, 자아행동 그리고 총자아긍정 영역에서는 관리, 전문직의 집단이 점수가 가장 높고, 판매직의 집단이 가장 낮았다. Scheffé-test 결과를 보면, 신체적 자아영역은 관리, 전문직인 집단과 무직, 판매직인 집단간에, 성격적 자아영역은 관리, 전문적인 집단과 판매적인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가정적 자아영역은 집단간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사회적 자아, 자아수용 영역은 판매직의 집단과 나머지 타집단간에, 자아행동 영역은 관리, 전문직의 집단과 판매직의 집단간에, 총자아긍정 영역은 관리, 전문적인

표 10. 커뮤니케이션 정도와 자아개념간의 상관

자 아 개 념	A	B	C	D	E	I	II	III	TP	SC
커뮤니케이션 정도	.31***	.27***	.44***	.50***	.38***	.31***	.41***	.47***	.53***	-.07

***p<.001

표 11. 부친-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변 인	R ²	Partial R ²	B	β	F
총자아긍정	.2836	.2836	.0775	.2622	13.71***
가정적자아	.3075	.0238	.2584	.2718	21.77***
학 력	.3194	.0120	.8397	.1090	8.98**
사회적자아	.3235	.0041	.1033	.0862	2.84

***p<.001 **p<.01

집단과 무직, 판매직의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수준에 따른 자아개념은 사회적 자아영역에서 p<.01수준, 자아행동 영역에서 p<.01수준, 총자아긍정 영역에서 p<.05수준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표 9). 사회적 자아, 자아행동 영역은 70~90만원 이상이 점수가 가장 높고, 30~50만원 미만인 집단이 가장 낮았다. 총자아긍정 영역은 70~90만원이상의 집단이 점수가 가장 높고, 30만원 미만의 집단이 가장 낮았다. Scheffé-test 결과를 보면 사회적 자아, 총자아긍정 영역은 70~90만원 이상의 집단과 타집단간에, 자아행동 영역은 70~90만원 이상의 집단과 30만원 미만, 30~50만원 미만의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경제적 소득이 높으면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된다고 한 Klausmeier & Ripple(김정휘·주영숙 1982)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준다.

3. 부친과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자아개념의 관계

부친과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자아개념간에는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관계(p<.001)를 나타내어 연구문제 III은 긍정되었다(표 10). 부친과 자녀의 커뮤니케이션과 자아개념간에 높은 정적 상관이 있다는 본 연구결과로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개념은 부친과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 정도가 자녀의 행동발달에 기여하여 원만한 청년기를 수행해가는 중요한 요인이 되리라 생각된다. 부친과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독립적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변량분석에서 검정된 의미있는 변인들만 채택하였고 명목변인은 가변수(Dummy Variable)로 전환하였다. 중회귀 가정의 위반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잔차분석을 한 결과, Durbin-Watson 계수가 1.899로 잔차간에 자기상관이 없었다.

부친과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정적 자아(β=.2718), 총자아긍정(β=.2622), 학력(β=.1090), 사회적 자아(β=.0862)로 나타났다(표 11). 즉, 가정적 자아가 높을수록, 총자아긍정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자아가 높을수록 부친과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 정도가 높다고 할 것이다.

결국, 부친과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4개 변인들의 설명력이 32%인 점을 감안할 때 또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회귀분석에서 사용한 자아개념외에 사회심리적 변인 및 사회경제적 변인, 사회인구학적 변인, 상호작용 변인등을 포괄하는 모델설정이 예측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부친-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자아개념을 규명하려는 데 있으며, 부친-자

녀관계를 증진시킴으로써 청년기를 원만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커뮤니케이션 척도의 표준화 문제, 연구대상자의 표집범위가 좁았다는 점과 부친-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선행연구자료 빈약등 제한점이 있었다.

이러한 제한점을 받아들인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부친-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중간점을 약간 하회하는 수준이었고, 학력, 직업, 소득수준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즉, 고학력, 관리·전문직, 고소득 집단이 커뮤니케이션 정도가 높았다.

2) 자녀의 자아개념은 규준집단의 중간수준으로 나타났고, 부친의 연령변인을 제외한 자녀의 성별, 부친의 학력, 직업, 소득수준에서 자아개념 하위 점수가 부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즉, 신체적 자아를 제외한 영역에서 여학생이, 고학력, 관리·전문직, 소득이 많을수록, 자아개념이 보다 긍정적이었다.

3) 부친-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자아개념의 상관관계는 자아개념의 자아평가를 제외한 전 하위점수에 있어서 유의한 수준($p < .001$)으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자아개념이 긍정적일수록 부친-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 정도가 높다는 결과로서 그중 총자아긍정 점수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자아평가 점수는 약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4) 부친-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정적 자아, 총자아긍정, 학력, 사회적 자아로 나타났으며, 가정적 자아가 높을수록, 총자아긍정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자아가 높을수록 커뮤니케이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설명력은 32%이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가 제안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부친-자녀관계를 파악하는데 부친의 측면에서 본 자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규명하여 부친-자녀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중학생, 대학생, 근로청소년

년등 청년기 대상을 다양하게 접근시켜 여러 양상의 커뮤니케이션을 파악함으로써 부친-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연구가 요망된다.

2) 본 연구에서 청년기 자녀와 부친과의 커뮤니케이션 정도가 中下집단에 속한 점을 볼때, 부친-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부친 역할의 긍정적인 자각 및 청년기 발달과업의 인식을 위한 교육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 훈련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적극적이고도 복합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3) 부친-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 정도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자아개념외에 사회심리적 변인 및 사회경제적 변인, 상호작용 변인들을 포함시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부모-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시점에서 연구결과를 보다 일반화하기 위한 표준화된 커뮤니케이션 척도를 개발하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1) 고정희(1981). 어머니의 대화형태와 아동의 성적 및 사회적 인지 능력간의 관계연구. 이대석사논문
- 2) 김경숙(1982). 가족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관동대 논문집 10, 11-25
- 3) 김광웅(1978). 부자관계에 따른 남아의 인성특징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아동연구 3
- 4) 김명자(1978). 여학생의 자아개념과 가정환경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6(4), 75-84
- 5) 김미란(1985).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대한 관련요인 연구. 성신여대석사논문.
- 6) 김설희(1982). 청소년을 통해 본 앞으로의 가족기능에 관한 소고. 성신여대석사논문.
- 7) 김정희·주영숙(1982). 교육심리학 탐구. 서울: 형설출판사.
- 8) 김정희(1987). 어머니와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 형태와 자녀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숙대석사논문.
- 9) 박미자(1981). 자녀의 성장에 미치는 부친의 영

- 향. 예산농업전문대학 논문집, 18
- 10) 박연호(1980). 인간관계론. 서울 : 박영사.
 - 11) 박춘심(1981). 부모의 관심이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14(1), 97-111
 - 12) 안복래(1980).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대구교육대학논문집 16.
 - 13) 옥선화(1987). 부모와 자녀의 대화. 청소년지도육성회
 - 14) 유명자 · 윤정자 · 임정화(1966). 가족간의 긴장이 사춘기의 소녀, 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 인대심리연구.
 - 15) 유영주(1985). 신가족관계학. 서울 : 교문사.
 - 16) 이석경(1987). 청년기 자녀와 아버지와의 대화에 관한 연구. 계명대 석사논문.
 - 17) 이종순(1983). 청년기에 이르는 자녀들의 가정생활 적용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 18) 장명옥(1981). 현대생활과 가정학. 서울대출판부.
 - 19) 장명옥(1982, 1984). 가정관리학. 서울 : 교문사
 - 20) 장현숙(1983).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의 차이에 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 21) 정원식(1968). 인간과 교육. 서울 : 배영사.
 - 22) 정원식(1968). 자아개념 검사법 요강. 서울 : 코리안 테스트 센터.
 - 23) 정혜영(1986). 십대자녀와 부모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동덕여대 석사논문.
 - 24) 진영희 · 박혜경 · 원세시리아(1986). 청년기 자녀와 부모의 커뮤니케이션 연구. 경희대가정관리논집.
 - 25) 차배근(1985). 커뮤니케이션학 개론(상). 서울 : 세영사.
 - 26) 황덕순(1981). 제주도의 가게관리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2), 39-56.
 - 27) 황정규 · 이상희 · 이장호 · 차경수 · 권영찬(1982). 한국 청소년의 생활양식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28) Adams, B.N.(1980). The family(3rd ed.).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 29) Aldous, J.(1978). Family careers.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 30) Binvenu, M.J.S.R. & McClain, S.(1978).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Home Economics* 62(5).
 - 31) Byrne, D.(1974). An introduction to personality(2nd ed.). New Jersey : Prentice-Hall.
 - 32) Chilman, C.S.(1975). Families in poverty in the early 1970's : Rates, associated factors, some implic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7, 49-62.
 - 33) Combs, A.W. & Snygg, D.(1959). Individual behavior. New York : Harber & Brothers.
 - 34) Corrigan, F.V.(1970). A comparison of self-concepts of American Indian student from public of federal school backgrounds. Doctoral dissertation,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 35) Deacon, R.E. & Firebaugh, F.M.(1975). Home management context and concepts. Boston : Houghton Mufflin.
 - 36) Deacon, R.E. & Firebaugh, F.M.(1981). Family resource management. Boston : Allyn and Bacon Inc.
 - 37) Duvall, E.M.(1977).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Philadelphia : J.B. Lippincott Company.
 - 38) Galvin, K.M. & Brommel, B.J.(1982). Family communication(cohesion and change). Illinois : Scott, Foresmand and Company.
 - 39) Hall, C.S. & Lindzey, G.(1978). Theories of personality(3rd ed.).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 40) Hurlock, E.B.(1973). Adolescent development(4th ed.). Tokyo : McGraw-Hill Kogaksha Ltd.
 - 41) Kohn, M.L.(1968). Social class and the family. New York : Holt, Rineheart and Winston.
 - 42) Lefley, H.P.(1973). Effects of an Indian culture program and familial correlates of self-concept among Miccosukee and Seminole children. *Doctoral dissertation*, N. 70-16.
 - 43) McClelland, D.C., Constantian, C.A., Regalado, D. & Stone, C.(1978). Making it to maturity. *Psychology Today* 12, 42-54.
 - 44) Nickell, P., Rice, A.S. & Tucker, S.P.(1976). Management in family living(5th ed.). New York : John Willy and Sons Inc.
 - 45) Paolucci, B. Hall, O.A. & Axinn, N.(1977). Family decision making : An ecosystem approach. New

York : John Willy and Sons Inc.

46) Rogers, C.R.(1951). Client-centered therapy. New York : Houghton Mufflin.

47) Schramms, W.(1971). Natural of communication between human. Urban, Ill University of Ellions

Press.

48) Tannenbaum, P.H.(1975). Initial attitude toward source and concepts factor in attitude change through communication. Quart.

